

전통 구기종목부터 신생 스포츠까지 “우리는 운동 중독”

축구

‘골때녀’ 바람에 인기 상승 부상 위험도 아랑곳 안해

지난 9월 4일 실시한 제33회 북구청장기 축구 대회에서 FC남구 (이하 광주남구여자축구팀)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FC남구는 2022년 5월 ‘골때리는 엄마들’로 첫 운동을 시작하여 2022년 10월 14일 ‘FC남구’로 창단된 후 광주광역시 남구의 슬로건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처럼 경험을 쌓기 위해 나간 첫 리그에서 우승팀이 되어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다. 선수들은 대회 우승이 확정된 순간 부상의 아픔을 잊고 모두 표정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회 우승에 일조한 김희영(FC남구 원

쪽 풀백) 선수는 “지난 9월 첫 대회를 앞두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발목, 허벅지 부상을 입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다가 옆진 데 댈진 격으로 첫 상대가 오랜 경력을 가진 팀이라 노련미가 상당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울지 말자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후회없이만 뛰고 오자!’를 구호로 삼았다.”라고 하며 역전 우승을 한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 “체력도 체력도 많이 차이나는 팀인데다가 주력 선수 한 명이 다치기까지 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구단주님과 관계자분들, 팀원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응원을 들으며 필드 안에 있는 선수들끼리도 서로 다독

이며 할 수 있다고 외쳤다”며 이후 “1: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속으로 넣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것이 우승의 발판이 되었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이어 “물론 경기가 끝나고 긴장이 풀리면서 잊고 있었던 아픔이 밀려와 모두 2주 이상 병원에 있어야 했지만 함께 대회 우승이라는 큰 결과를 만들게 되어 너무 좋다”고 들뜬 얼굴로 경기 비하인드를 설명했다. 그리고 김희영 선수는 “감사하게도 ‘SBS-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자 축구의 인기가 높아졌다. 예전보다 여자 축구에 대해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다”고 높아진 여자 축구 인기에도 언급했다. /김현지 학생기자



배구

팀 플레이의 최적 경기 몸싸움 없는 안전 스포츠

광주에 작년보다 급격히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있다. 바로 구기종목중 하나인 배구다. 그로 인해 일반인들 대상 배구클럽, 교실이 매우 많이 생겼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광주에서 배구가 인기가 많아졌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배구를 즐기고 있는지 궁금하여,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대목체육센터 내 철수 배구교실에 방문했다. 철수 코치님은 현재 광주배구협회 소속으로 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3월에 개최된 한국 실업 배구연맹에서 선수로 참여해 준우승, 6월 전국체전에서 비오신 코리아(조선대) 코치로 참여해 8강에 진출 등 올해만 해도 훌륭한 업적들을 쌓았다. 시간이 지나고 배구 불모지였던 광주에서 슬슬 배구가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최초 유소



년 배구클럽을 설립했다고 전했다. 나철수 코치님은 이곳이 물론 운동하러 오는 곳이지만 일반인들이 다가오기 위해선 진입장벽을 낮춰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친구처럼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궁금했던 왜 광주에서 배구가 갑자기 인기가 급격히 높아졌을까? 나철수 코치님에게 이어서 질문해봤다. 나철수 코치님은 첫 번째로 다른 구기종목에 비해 공간이 제한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학생기자

파크골프

동호인 수 벌써 2400명 2~3주 레슨 받으면 충분

공원에서 치는 골프라니 시사하지 않을까? 최근 이처럼 급부상한 스포츠가 없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가족 스포츠, 바로 파크골프다. 2022년 8월 기준 광주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인원만 2400여 명에 달하는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재활운동으로 시작돼 한국, 하와이, 호주, 중국, 미국 등 널리 애용되는 구기종목이다. 보통 4인 1조로 최종 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 방식으로, 큰 틀은 골프와 같지만 직경 6cm 가량의 부드러운 공과 나무로 만든 채 하나만 경기할 수 있다. 첨단대목파크골프장에서 만난 이종성 광주시파크골프협회 전무이사는 “얼마 전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파크골프 시범경기로 특히 관심 갖는 사람이 늘었다”며 “주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즐겼었는데 최근



그 인구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3주 레슨 받으면 필드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서 동호인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아직도 구장은 광주에 8곳 정도로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일상이 마비되며 실내운동이 힘들어졌던 상황에서 돌파구로 파크골프를 찾은 인구도 많다. 모든 홀을 카드 없이 경기하기 때문에 구장에 따라 기본 9홀부터 36홀(4코스)까지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민경 학생기자

승마

관심폭증 200명 입회 대기종말과 정서적 교감 중요해

필자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승마를 취재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승마협회’ 에 방문, 그곳에서 승마장 체육회 코치 및 장애물 선수로서 활약중인 최문희 코치와 인터뷰를 나누게 되었다. Q: 국내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는데 많은 시 대표 또는 팀들을 제치고 어떻게 계속 입상중인지 궁금하다. A: 말의 기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기량이 우수한 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보유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협회장 및 마주 회원들이다. 즉 운동 선수가 뛰어난 말 위주의 보육과 그런 단계까지 많은 도움을 주기에 꾸준하게 좋은 성적이 가능하게 아닌가 싶다. Q: 2030세대들에게 승마에 대해 알릴 계획은? A: 우리가 시설 규모 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을 만큼 신청이 들어와 너무 잘 되고 있다. 회원을 더 받으려면 그만큼 말도 더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말이 휴식할 마당이 딱 좋다. 이곳에 4년 전 처음 취직했을 때는 마방이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약 2년 전 쯤부터는 대기 인원이 수십 명 가량 생기더니 올해로는 200여명이 대기중이다. Q: 타 종목에 비해 덜 알려진 종목이 승마이지만, 사실 무생물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닌 한 마리의 생명체와 합을 맞춰 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종목보다도 ‘인간적인’ 면이 많은 종목 또한 승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을 위해 마주가 말에게 해줘야 할 대표적인 교감 및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A: 말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붙어있어서 시피 하고, 때끼리 영양을 고려한 식단부터 시작해 아픈 곳은 없는지, 짚을 내어 산책을 함께 하며 흠과 풀 향기 한 번이라도 맡게 해준다. Q: 동물 중에서도 말의 지능과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지석 학생기자



광주승마협회 최문희 코치

야구

광주 간판 스포츠 인기 여전 사회인야구 수준별 리그 열기

광주를 연고지로 하며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스포츠는 야구이다. 그 지역의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유소년하고 사회인 동호회 등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다. 광주는 사회인 야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리그도 두 개의 리그로 되어있다. 한 리그에 약 10개의 팀 정도 있으며 올해는 4강 전 진행 중이며 작년에는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한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대회에서도 광일 리그는 그린라인이 무등 리그는 자연환경이 우승했다. 이 대회는 아마추어 대회이지만 광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영광 야구 소프트볼 협회 그리고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도 대회 후원에 나선 만큼 광주 사회인 야구인들은 축제였다. 광주 타이거즈의 10월 23일 날 선발 투수였던 이상남 선수가 프로야구도 재밌지만 사회인 야구의 매력



을 알려주었다. 이상남 선수는 사회인 야구에 가장 큰 장점 사회인 야구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야구를 하고 싶은 들을 팀원으로 모집하면 야구를 계속 재미있게 이어갈 수도 있고 축구는 야구와 다르게 스포츠는 활동량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아프로 선수 출신인 박지훈 선수는 은퇴 후 박지훈의 야구매니아라는 광주야구레슨장을 열었다. 여기는 사회인 야구인들이더 좋은 실력을 기르기 위해 /김재중 학생기자

축구

공격 못지않은 수비의 쾌감 “아시안게임·올림픽도 가능”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김경성 해설 위원은 축구 선수 10년, 광주광역시 전무이사 5년, 해설 위원이라는 자리에서 광주 생활 체육 축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학 시절, 우연히 친구가 출전한 축구 대회에서 족구를 구경하게 된 것이 제가 처음 접한 족구였어요. 제가 수비수인데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내는 순간의 짜릿함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성 해설 위원은 대학시절, 친구가

출전하는 족구 대회를 따라간 것이 제가 족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경기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눈으로만 보니까 너무 답답했고, 속으로 “내가 뛰면 더 ভাল할 수 있겠다, 저 정도 공격은 내가 하면 다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것을 계기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선수에서 전무이사, 해설위원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선수 시절, 김해설 위원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족구였던 것만큼 구기종목에 소질이 있었고, 진입장벽 역시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단순히 순으로만 보는 족구가 답답해서 시작한 게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일반 지역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게 되었고, 가장 높은 부서인 최강부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양홍민 학생기자

재능, 노력, 열정으로 전국 대회에서 역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팀이 광주 대표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경기마다 슈퍼세이트, 강한 공격을 막아 낼 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김해설 위원은 전무이사가 하는 일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족구 동호인들 모두를 관리하고, 대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는 자리다. 족구에 관한 모든 사안을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각 구경에서 예산을 받아 족구대회를 개최하고, 광주를 대표로 전국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훈련 여러 부분까지 관리하는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초, 중, 고 방과후 수업에도 강사님을 초청하고 육성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도 전무이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중 학생기자

“족구가 전국체전 시범종목이 되면서 여러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mbc 스포츠, IB스포츠 채널에서 족구를 녹화 방송하거나 생중계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10년간의 선수 생활과 5년 가까이 전무이사 역할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했을 때 경험과 전무이사를 했을 때 행정적인 부분까지 경험이 많다 보니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족구인들이 좋아할 만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경기의 이해도를 높여주고 재미있고 즐겁게 볼 수 있게 해설위원으로서의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중 학생기자



았다. 현재 여러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도 포츠 족구가 세계무대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말했다. /양홍민 학생기자